

낭만도시 여수관광 담은 웹드라마 '하멜' 제작

여수 관광자원 알리는 9번째 작품 하멜표류기 기반 MZ세대 사랑 그려 내년 국제 웹페스트 영화제 상영

하멜 표류기의 무대인 여수에서의 시간 여행을 다룬 웹드라마가 제작된다. 여수시는 9번째 여수관광 웹드라마인 '하멜'을 내년 초 배포 목표로 제작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이 드라마는 내년 열리는 '1회 여수 국제 웹페스트 영화제'에서도 상영될 예정이다. 드라마 '하멜'은 네덜란드 하멜표류기를 기반으로 내용이 구성됐다. 낭만도시 여수를 배경으로 MZ세대의 모험과 사랑을 그렸다. 1화 고장난 나침반, 2화 시공간의 왜곡, 3화 사라진 일상, 4화 모두가 이방인, 5차 바다와 시간의 빛 등 총 5화로 구성됐다. 여행 작가인 주인공이 우연히 여수 하멜 등대 앞에서 오래된 나침반을 발견해 17세기 후반 과거로 시간 여행을 떠난다.

주인공은 일본으로 항해하던 중 표류해 여수에 체류하게 된 1660년대 헨드릭 하멜과 만나게 된다. 주인공은 하멜의 귀국을 도우면서 조선시대 과거와 현재를 오가며 일상과 가족의 소중함을 되새긴다는 내용이다. 여수시는 유럽인에게 친근감을 줄 수 있는 하멜표류기를 소재로 해 웹드라마를 홍보할 방침이다. 내년엔 처음 열리는 '여수 국제 웹페스트 영화제'에서 드라마를 소개하며 여수의 아름다움을 세계적으로 알릴 계획이다. 드라마는 여수의 명소와 관광지 곳곳에서 촬영했다. 하멜 전시관과 하멜 등대, 선소, 충민사, 화양면 봉화산, 일레븐 브릿지, 여수밤바다, 큰갯등대, 자산공원, 박람회장 등 아름다운 여수의 풍경을 담았다. 여수관광 웹드라마는 2016년 '신지기의 사랑' 이야기를 시작으로 올해 '꿈꾸는 섬'까지 총 8편 제작됐다. 8편 연속 국내의 웹페스트 시상식에서 수상하며 꾸준히 작품성을 인정받고 있다.



하멜표류기 내용을 기반으로 제작되고 있는 여수관광 웹드라마 '하멜' 촬영 현장. <여수시 제공>

정재호 여수시 수산관광국장은 "낭만도시 여수의 관광자원을 웹드라마에 최대한 담고자 한다"며 "뉴미디어 시대 웹드라마를 통해 해양관광휴양도시 여수의 브랜드 가치를 높여 국내·외에 여수관광을 널리 알리겠다"고 말했다. /여수=김창화 기자·동부취재본부장 chkim@

보성군 흙품 어르신 등 37가구 화목용 펠감 37t 무상 공급

보성군은 흙품 어르신 등 37가구에 화목용 펠감 37t을 무상 공급했다고 18일 밝혔다. '사랑의 펠감'은 지난 13일부터 15일까지 사흘에 걸쳐 지역 고령 1인 가구 등 37가구를 대상으로 나눠줬다. 이번에 공급된 펠감은 '2023 숲 가꾸기'와 임도 개설 등 산림사업으로 발생한 부산물을 활용해 만들어졌다. 보성군 공공 산림 가꾸기 근로자와 12개 읍·면 사무소 직원들이 펠감 나누기에 동참했다. 보성군은 지난해에도 38가구에 펠감을 지원했으며, 앞으로 산림복지를 더 확대할 방침이다. 보성군 관계자는 "경제, 사회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따뜻한 손길이 필요한 이웃에게 펠감을 지원함으로써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는 공동체 의식을 형성하고자 했다"며 "따뜻하고 정감 넘치는 사회 분위기 조성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보성=김홍백 기자 kyb@kwangju.co.kr



보성군이 고령 1인 가구 등에 무상 공급할 펠감을 화물차에 싣고 있다. <보성군 제공>

고흥군, 민원행정서비스 응답자 10명 중 9명 "만족"

고흥군의 민원행정서비스에 대한 고객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고흥군은 민원 행정 품격 향상과 친절·정령 브랜드 장악을 위해 실시한 2023년 민원 행정서비스 만족도 조사 결과 고객 만족도가 92.95점으로 매우 높았다고 18일 밝혔다. 고객만족도 조사는 지난 4월~11월 6회에 걸쳐 군청과 16개 읍·면 현행시스템(새울)으로 접수한 3일 이상 기한의 민원 서비스를 이용한 민원인 대상으로 조사됐다. 민원 담당자의 서비스 과정과 결과에서 전문·친절·공정·대응성, 서비스 환경 등 9개 항목에 걸쳐 조사가 이뤄졌으며 응답자 10명 중 9명 이상이 만족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상반기 만족도가 92.86점인 것에 비해 하반기 만족도는 93.04점으로 0.18점 상승했다. 하반기 조사 결과 중 서비스 과정의 친절성은 93.67점(0.34 상승), 서비스 결과의 공정성은 93.54점(0.09 하락) 등 만족도가 높았으나, 민원인이 인식하는 신속한 업무처리 결과 안내는 91.88점으로 개선의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성(92.48점)의 종합만족도가 여성(92.12점)보다 높았고, 연령별로는 20대(98.24점)에서 만족도가 높았다. 군청 사보다는 읍·면(95.51점)에서 3.81점이 높았다. 고흥군 관계자는 "그동안 공직자 친절 교육, 민원 처리결과 피드백 등 다양한 시책 추진 결과가 반영됐다"며 "미비한 점은 개선하고, 친절한 공무원을 찾아 인센티브 제공도 하겠다"고 말했다. /고흥=주각중 기자 gju@kwangju.co.kr

광양시 내년 1월4일까지 찾아가는 전세피해 상담소 운영

광양시가 26일부터 내년 1월 4일까지 전세피해 임차인 구제를 위한 '찾아가는 전세피해지원 상담소'를 운영한다. 광양시에 따르면 찾아가는 전세피해지원 상담 서비스는 정부의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주거 안정 방안'의 일환으로 국토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주관으로 운영한다.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법률·심리·금융·주거지원 상담을 제공한다. 상담소 운영시간은 평일 낮 12시부터 오후 8시까지이다. 상담을 희망하는 시민은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등기부등본을 소지하고 종마동사무소 2층 소회의실로 방문하면 된다. 거동이 불편하거나 외출이 부담스러운 시민들도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사전예약을 통한 자택 방문상담 서비스도 제공한다. 한편 광양시의회는 전세 피해에 대한 임차인 보호와 지원을 위해 조례를 제정했다. 김보라 광양시 의원은 "광양시 전세 피해 임차인 등 보호 및 지원 조례안"을 주택 임대차 관련 분쟁 및 전세 사기 등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임차인을 지원하고 시민의 주거 안정에 기여하고자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순열 광양시 건축과장은 "찾아가는 전세 피해 상담소 피해를 입은 임차인에게 내실있는 지원이 될 수 있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재산권 보호 및 주거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순천시청 직장운동경기부 김태성 총감독 30년 지도자 생활 마무리 명예로운 퇴직

노관규 시장 노고 격려 공로패

순천시 직장운동경기부 김태성 총감독이 올해를 끝으로 30년의 지도자 생활을 마무리 했다. 순천시는 직장운동경기부 김태성 총감독이 올해를 끝으로 퇴직함에 따라 30여년간의 노고를 격려하는 공로패 수여식을 18일 진행했다. 김태성 총감독은 1994년 순천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소프티니스팀의 창단을 시작으로 선수들을 지도하며 크고 작은 대회에서 입상해 소프티니스 종목의 발전과 시 직장운동경기부의 성장에 크게 기여했다. 이후 창단된 양궁팀, 유도팀과 함께 3개 종목의 선수들을 아우르며 총감독으로서의 탁월한 지도력을 보여주었다.

노관규 시장은 "긴 시간 동안 뛰어난 식견과 지도력을 바탕으로 모든 열정을 다해주시는 김태성 총감독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라며 "앞으로도 순천시의 체육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순천=김은중 기자 ejkim@kwangju.co.kr



노관규(오른쪽) 순천시장님이 18일 직장운동경기부 김태성 총감독의 노고를 격려하는 공로패 전달하고 기념촬영을 했다. <순천시 제공>

4차산업 첨단기술 직접 체험해보세요

순천시 '내일을 잇는 미래 체험회' 로봇 군무·우주발사체 전시도

우주와 로봇, 드론, VR체험게임 등 다양한 4차 산업 기술들이 한자리에 모인다. 순천시가 19일 풍덕동 소재 순천생태비즈니스센터에서 로봇과 우주 등 순천의 신산업 분야를 총망라한 '2023년 순천의 내일을 잇는 미래 체험회'를 개최한다. 지난 2월에 개최한 순보 체험회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리는 이번 체험회는 보다 규모를 확대해 시민들에게 신산업 성과를 선보일 예정이다. 올해 한화 발사체 유치·전남형 균형발전 300·로봇사업 공모 3관왕 등 급진화 사업을 바탕으로 남

해안 미래 첨단 산업을 견인했던 순천시는 VR·드론·체험게임 등 4차산업 기술들을 통해 시민들을 맞이한다. 또 엑소스켄(이선호 과학 커뮤니케이터)의 강연 '우주 in 순천'을 통해 미래산업의 주역이 될 학생들과 우주산업의 꿈을 키워나가는 시간을 가진다. 부대 행사로는 ▲사랑의 음식 나누기 ▲우주발사체 전시 ▲크리스마스 트리 소원 빌기 ▲로봇 군무가 진행된다. 순천시 관계자는 "순천의 미래 먹거리 산업을 선보이는 본 행사를 통해 새롭게 탈바꿈될 순천의 모습을 보게 될 것이다"라며 "순천은 지방 소멸 위기 속에서 미래 도시가 나아가야 할 이정표를 제시하겠다"라고 말했다. /순천=김은중 기자 ejkim@kwangju.co.kr



지난 2월 개최된 순보 체험회에서 아이들이 군무로봇을 보고 있다. <순천시 제공>

순천시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신입생 80명 29일까지 모집

순천시가 오는 20일부터 29일까지 2024년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신입생 80명을 모집한다. 방과후아카데미는 '청소년수련관'과 '청소년문화의집'에서 직접 운영하며, 청소년의 건강한 방과 후 생활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다양한 체험활동·학습지원·급식지원·상담 등 종합서비스를 제공한다. 대상은 지역 내에서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교 4~6학년 40명(청소년수련관)과 중학교 1~2학년 40명(청소년문화의집)이다. 운영 기간은 2024년 1월부터 12월까지 1년간 운영한다. 신청 방법은 1차로 시청 홈페이지나 홍보 전단에 있는 QR코드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고, 2차는 신청서를 작성 후 구비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순천=김은중 기자 ejkim@kwangju.co.kr